

진각복지회, 스리랑카·네팔지부 설립

국제 구호·포교 본격화

진각복지재단(이사장 성초)이 스리랑카와 네팔에 현지 지부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국제구호사업에 나선다. 진각종 성초 총무원장과 진각복지회 임원진은 이날 25일 두 나라를 차례로 방문, 지부 설립에 따른 현안사항을 갖고 한국불교 위상제고와 국제사회의 이익을 담당할 실질적인 해외포교의 첫 삽을 뜬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한국국제협력단 민간원조단체(NGO)에 가입한 진각복지회는 이번 지부 설립을 통해 불교계 종단으로는 처음으로 NGO 성격의 해외 복지사업에 펼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금까지 산발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져 온 해외포교가 그 나라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해외포교에 뜻을 둔 다른 불교계

단체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구호 및 복지사업을 통해 한국불교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전망이다. 포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진각종은 지난 96년부터 종단차원에서 진행해온 북한주민 및 재중동포, 탈북자 돕기를 포함한 '한겨레구호사업'과 진각복지회가 실무를 맡게 될 네팔·스리랑카 구호사업을 포함해 대규모의 국제사업을 펼치게 된다.

25일 스리랑카를 방문하는 종단 인사들은 카트만두에서 네팔전통 불교회측과 만나 지부 현안사항을 갖고 양국 불교교류와 국제협력 및 문화·인적교류, 구호·복지사업 등에 대한 향후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카트만두 불루스타 호텔에서 법회형식으로 진행되

며, 진각종이 준비한 의류 등 구호품과 소정의 장학금도 전달된다. 또 28일에는 스리랑카를 방문해 콜롬보에서 지부 현안사항을 갖고 학용품 등의 구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스리랑카와는 지난해 12월 스리랑카 대통령과 이 나라 최대종파인 시암종 대표와 지부 설립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양국 지부의 보다 자세한 향후 사업방향과 내용은 이번 방문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진각복지회는 지부 설립의 목적인 불교교류 및 구호사업의 이미지를 선명히 부각시키기 위해 현관 명칭을 'JOE Sri Lanka(Nepal) Bridge'로 결정하고, 지부에는 종단관계자나 자원봉사자 파견 등을 고려하고 있다. JOE는 'The Joy of Genuine Oneness(하나되는 즐거움)'의 약자다.

한편 진각복지회는 두 나라 관계자들과 만나 합의된 사항은 다음 달 초순경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설립되는 두 나라 지부가 안정적인 활동을 펼칠 경우 경제여건이 어려운 다른 동남아국가에도 지부 설립을 검토하는 등 활동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진각복지회 하승현 부장은 "이번 두 나라 지부설립은 일차적으로 복지 및 구호사업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종단은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nia.com)



보물지정당시



현재 모습

◇보물지정당시 양손이 없던 보물 제98호 충주 철물좌상(사진 위)이 현재는 손이 조형되고 도금으로 인해 눈이 매설되고 가슴에 주름이 잡히는 등 원형이 훼손됐다.

선원사 철조여래좌상 → 금동 개금

한천사 여래좌상 → 손모양 변경

보물지정 불상 오히려 훼손

감사원 문화재청 특감

국가에 의해 보물로 지정된 불상이 용접으로 훼손되는 등 정부의 문화재 보존 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문화재 보호·보존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발굴된 유물의 국가귀속 미조치와 문화재 입의 훼손, 매장문화재 훼손 등 81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불교문화재인 보물 98호 충주철물좌상은 허가없이 눈이 사방게 번고 있던 주름이 잡히는 등 몸매가 비대해졌으며, 보물422호인 선원사 철조여래좌상은 철조불상이었으나 구수 금동불상으로 개금되었다. 보물 제 667호 한천사 철조여래좌상은 본래 양손의 엄지와 중지를 등글게 모은 형태였으나 지금은 왼손을

퍼서 하늘로 향하고 오른손은 퍼서 무릎을 덮는 모양으로 변경되는 등 현상변경 허가없이 원형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물 제887호인 <감자금니대반야바라밀다경>과 보물 제775호 <세소주자강반야바라밀경>의 경우는 소유자가 사망한 후 장기간 보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현재 행방 불명인 상태다. 감사원은 현상변경 허가 없이 변경한 이들 보물을 조사해 원형복원시키거나 국가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지정해제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발굴된 유물 가운데 대학박물관 등에 임시보관 중인 국가귀속 유물이 16만 4천여점으로 나타났으며, 금속류 문화재의 경우 보존 및 관리대책 미비로 801점중 49.5%에 해당하는 397점이 부식된 것으로 나타나 문화재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은자 기자

“불교 자주권수호-혁신” 사찰 5백여곳 동시법회

서명운동도 전개

6일까지 전국 150여 사찰과 단체가 참여, 불교 자주권 수호와 혁신의 열기를 모아내고 있는 가운데 8일 초하루를 기해 주요 사찰 500여 곳에서 불교자주화 선언 전국 동시법회가 봉행되었다.

서울에서는 조계사 봉암사 도선사 능인선원 화계사 석왕사 등의 사찰에서, 지방에서는 교구본사를 비롯한 주요사찰에서 동시에 법회가 열렸다.

한편 '사회정의와 불교자주권 수호'를 위한 법불교 서명운동본부(공동본부장 백창기·박광서)

가 지난 10월 14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은 9일 현재 6만여 명을 기록했다. 13일과 14일에는 '불교자주화 혁신을 향한 법불교 동진대회'가 개최됐다.

13일 오후 3시부터 불교자주화 불교혁신 대중토론회를 시작으로 108배 정진, 촛불행진, 문화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14일 오후 2시부터 전진대회, 실천행사, 수행정진 회향 및 수계법회 등을 통해 불자들의 의지를 내외에 천명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개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서울 강남한방병원(원장 이원철)은 11일 개원식을 통해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이날 개원식에는 송석구 총장을 비롯 현성스님(중앙승가대 총장), 법등스님(조계종 총회회장), 민병천(前 동국대 총장), 서문각(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황명수(前 동국대 총동맹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중근 기자

사찰환경수호 5만여명 서명

법불교대책위, 국회에 제출

조계종 사찰환경수호를 위한 법불교대책위는 11일 만성스님(기획실장)을 대표로 불교도 5만 3천496명의 서명용지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현, 국민회의)에 제출하고 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만성스님은 "정부가 규제완화 조처의 일환으로 건축법 8조 4항의 폐지함으로써 사찰지체와 문장이 끊어지고

사찰주변과 수행환경이 급격히 훼손되는 상황이다"며 "사찰환경 보존을 위해 이번회기에 전통사찰보존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현 문화위원장은 "문화위 의원들도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원우 기자

동국학원 이사회 열어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 녹원)은 10일 동국대 회의실에서 135회 이사회를 열고 불교종합병원계약인준의 건, 징계위원회결성의 건, BK21 참여에 대한 보고

등이 논의됐다. 정관개정의 건은 재적이사 2/3(8명)가 참석하지 않아 논의되지 않았다.

이날 이사회에는 녹원 정대현 스님을 비롯 송석구 황명수 서문각 유주영 등 7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김중근 기자

군불교진흥회 새회장

정각스님 선출



사단법인 군불교진흥회는 12일 국방부 호국원관사내 사무국에서 제7차 임시총회를 열고 제8대 신임회장에 회회 이사인 정각스님(전남 군법정전립위원장·사진)을 선출하고 감사에 최우진 박사·유건홍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따라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9개월간 표류하던 군불교진흥회 제정자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포교의 최대 지원단체인 군불교진흥회는 지난 2월28일 박상길 전임회장의 사임이후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은 데다 사무국의 업무 미비와 예산난 등이 겹쳐 존재 위기마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임기 4년간 박상길 회장의 잔여임기 1년간 직무를 수행할 정각스님은 법인 기금 확보, 조직 정비 및 회원 화합 등 많은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동포 보련정사 주지인 정각스님은 현재 목포교도소 종교협의회회장, 법륜종재단이사장을 맡고있다.

통영미륵산 케이블카 반대

사암련·시민단체 “호국성지 훼손안된다”

미륵산 개발을 두고 시민단체의 반대외견과 관광 업계와 시의 개발논리가 찬반 논쟁으로 뜨겁게 달구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반대 시민의 모임(공동대표 선곡스님, 송수용, 열등운)은 14일 미륵산 정상에서 시청, 시의회, 시민모임, 지역사회단체, 여성단체, 환경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여 산상 토론회를 열고 개발계획 과장상의 미비점 지적, 진정서 제출, 서명운동 등을 통한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

통영사암련협회, 산악회 1백여 단체, 일반시민 등 5백여명이 동참하고 있는 시민의 모임은 10월 8

일 창립대 케이블카 설치반대 스티커 제작, 광고전단 배포, 대시민 홍보활동과 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반대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2만인 서명을 목표로 현재 1만 5천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통영사암련협회 회장 선곡스님은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승병들이 수행했던 청정수행도량이며, 호국성지인 미륵산에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을 수없이 다"며 "용호사, 미륵사 등의 사찰을 중심으로 불교적 정서로 시민들의 애환을 함께 해온 미륵산을 관광개발이라는 짧은 안목으로 파괴하려는 시의 개발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대韓佛敎 總和宗 中央宗會 開催公告

本宗은 第13代 第44次 中央宗會를 다음과 같이 奉行하겠사오니 宗會議員을 비롯 全幹部 大德 큰스님께서는 公私多忙하시더라도 隨喜 同參하시어 宗團發展에 寄與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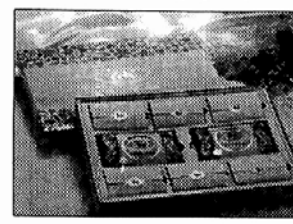
- 日 時 : 佛紀 2543年 11月 24日(음10月 17日) 午前 11時
- 場 所 : 總務 會議室
- 연락처 : 0346-592-8891

大韓佛敎 總和宗 宗會議員 李萬悟 合掌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할(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향음식의 성분이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체계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줍니다. 향비는 자연적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배가기 임의 뱃줄을 통해 모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육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동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33세년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 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의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페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든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 애당되는 증상(○) 의심시요.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땀띠가 검고 딱딱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신적으로 활력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